

# 한국기자협회-5·18재단 '5·18 세계화' 손 잡는다

### 역사 왜곡·가짜뉴스 공동 대응...해직 언론인 명예회복 나서기로

한국기자협회와 5·18기념재단이 손잡고 5·18정신의 계승과 전격화 및 세계화에 힘쓰기로 했다. 양 기관은 최근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과 가치 계승을 위한 상호 협력·공동사업을 펼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들 기관은 5·18 왜곡과 편향 공동 대응, 악의적인 가짜뉴스 배격 방안 논의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월 21일 통과하면서 1980년 5월, 신군부에 항거 후 불법 해직된 언론인들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을 받게 됐다.

박정희 정권의 몰락과 함께 등장한 전두환 신군부는 유신체제 아래에서 억눌렸던 민주화의 주장이 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언론을 통제했고, 조직적으로 언론의 구조개편을 강행했다.

한국기자협회는 1980년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신군부의 광주 시민 학살과 민주주의 말살에 항거해 전국적인 신문 방송 검열 제작 거부운동을 펼쳤다. 당시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신군부에 맞서다 강제해직 당한 언론인은 무려 900여 명에 달한다.

김동훈 기자협회장은 "한국기자협회는 5·18의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아울러 5·18의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해직과 투옥 등의 아픔을 겪으신 해직

기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언론통제를 위한 언론인 불법 해직과 징계는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정권까지 이어졌다.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학살과 언론학살을 기억하는 것, 한국기자협회와 재단이 진행할 공동사업은 이 땅에 유산한 비극 재발을 막는 안전판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80년 해직언론인협회 고승우 공동대표는 "1980년 강제 해직된 언론인들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포함된 것은 41년간 왜곡된 광주항쟁 역사가 바로잡힌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한국기자협회와 5·18기념재단이 협업해 광주항쟁이 신군부에 대한 전국 투쟁으로 기념되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5·18기념재단은 1980년 언론인 해직의 진상을 밝히고 그들의 노력을 기억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과 언론투쟁' (2014)을 발행했으며, 광주전남기자협회와 매년 5·18인문상을 시상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2006년, 5월항쟁 기간 동안 언론인들의 신군부에 대한 투쟁을 기리기 위해 5월 20일을 '기자의 날'로 제정해 5·18기념재단과 토론회 등 공동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5·18인문상을 후원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한민국 동행세일 시작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개척, 소비 촉진을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시작된 24일 광주 서구 신세계백화점 출입문에 세일이란 문구가 적혀있다.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세일에는 GM캐트와 옥션, 쿠팡 등 6개 온라인 유통사와 7개 TV 홈쇼핑,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이 참여한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대전환기 맞은 전남 교육, 탄탄한 미래 열겠다”



취임 3주년 맞은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남은 1년 기초학력 전담교사 확대 배치 등 5대 핵심과제 중점

“더 큰 변화와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전남교육의 탄탄한 미래를 열겠습니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24일 오전 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남교육은 이제 혁신을 넘어 미래로 도약하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혁신으로 시작된 담대한 변화를 통해 아이들의 빛나는 미래를 열어가야 할 때”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장 교육감은 “어떠한 위기에도 전남교육 발전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며 남은 임기 1년 동안 5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학습격차 해소와 맞춤형 진로·직업 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기초학력 전담교사 확대 배치, 인공지능 온라인 튜터 확대 운영, 전남교실 ON닷컴 2.0 고도화와 전남형 공공학습 플랫폼 조기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자녀 통합 돌봄체계 구축과 학생 건강회복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 학교돌봄터 사업 등 지역 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을 확대하고 건강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미래형 창의융합인재 육성을 위해 모든 학교에 창의융합형 미래교육과정을 도입하고,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물론 창의융합교육센터를 오는 2023년까지 모든 시·군에 확대한다.

코로나 시대 교육 대안으로 주목받는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도 더욱 확대해 전남의 미래가 살아 숨 쉬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자치와 협치가 꽃피는 지역 교육생태계를 위해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를 확대하고, 교육지원청이 인사와 예산 운용의 자율권을 갖고 고등학교까지 지원하게 될 혁신교육지원청을 시범 운영한다.

장 교육감은 “지난 3년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변화와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전남교육의 탄탄한 미래기반을 다지겠다”며 “능부는 발을 닦아놓는다는 초심과 오직 아이들이 바라보며 달 리겠노라는 취임의 일성은 앞으로도 변함없는 전남교육의 기본 원칙이 될 것이며, 모든 교직원의 한결같은 신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호남권 국·사립대, 국립대 육성 프로그램 참여

### 전남대 등 10개교

전남대를 비롯한 ‘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협의체’ 회원 대학들이 ‘광주전남이 읽고 독하다’ 사업 등 국립대학육성사업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다.

23일 호남권 국·사립대 10개교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협의체’ 회의에서 참여 대학들은 기존 국립대학 육성사업 네트워크 프로그램인 ▲‘광주·전남이 읽고 독하다’(전남대) ▲‘중무공 발자취를 따라서’(북포해양대) ▲‘지역 인접대학 해양체험 문화 네트워크 교류 사업’(군산대) 등에 회원 대학들이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또 ‘광주·전남이 읽고 독하다’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 전남대 디지털도서관을 방문해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공유하기도 했다.

‘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협의체’는 대학 간 유형, 지역, 기능별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네트워크 사업 신규 프로그램 소개 등 참여대학 간 정보공유와 협력 활성화를 이끌고 있는 회의체이다.

이준용 전남대 기획조정처장은 “앞으로도 호남권 국·사립대학간의 협력과 교류로 상호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협의체가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넷째주 토요일 ‘여성특화 플라마켓’ 오세요

### 광주 동구 푸른길공원에서

광주시 동구 푸른길 공원에서 여성 특화 플라마켓이 상설운영된다.

24일 동구에 따르면 푸른길공원 산수문화마당에서 26일부터 매월 넷째 주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플라마켓’이 열린다.

이번 플라마켓은 동구형 여성능력개발 플랫폼인

‘동구만세(동구 여성이 만드는 세상)’ 여성 거점 공간을 마련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준비됐다.

참여단체로는 여성 거점 공간 ‘공감수다방’ 공동체, 여성가족친화마을공동체, 여성 자활사업단과 기업, 여성 소모임 공동체 등 10여 단체가 참가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창립 40주년 고객 감사 이벤트

대상

300만원 상당(1명)

금 10돈

1등

100만원 상당(1명)

건조기

2등

50만원 상당(2명)

청소기

3등

30만원 상당(3명)

쿠쿠밥솥

4등

10만원 상당(10명)

에어프라이어

5등

5만원 상당(20명)

온누리상품권

※본 경품은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공공은 본인부담이며 상기 조건은 추첨일까지 유지자에 한합니다.

경품행사기간 : 6월 21일 ~ 10월 31일

#경품추첨일 2021년 11월 10일 #경품추첨장소 대광금고 본점 3층 회의실

#경품응모권 지급 조건 ①자동이체 신규 및 변경(최소 5건 이상) ②출자금 신규 및 추기(최소 30만원)

#가입기본선들 고급 통장케이스 증정

MG대광새마을금고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지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